

계획설계 거부 운동만이라도 실천하자!

Don't do Preliminary Design Before Contract

최영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oung-Jip

지난 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 “건축문화의 해” 행사를 마치고 온통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다고 들 때 2000년을 시작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02년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의 경제불황으로 건축경기는 아직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많은 건축전문인력들은 건축을 떠나고 있다.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들은 21세기 한줄기 희망을 붙들고 보고자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지내고 있는가. 건축조건의 악화로 인해 상실감, 허탈감, 허무감 등에 사로잡혀 그 좋아하던 건축에 회의를 느끼게 되니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축문화의 해” 표어인 “건축은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이라는 말과 오버랩 되면서 또 얼마나 실소를 자아내었던가. 그런 가운데 건축설계시장은 대책없이 개방되었고, 지구촌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국제 수준의 건축사제도와 건축교육제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우리 건축사들은 최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니 모두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식을 전환해야하고, 체질을 개선해야하고,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쳐대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해야 근본적인 처방이 되고, 자질향상이 되고, 문제해결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가 바뀌어 다소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단체인 협회에서도 여전히 허공의 메아리처럼 원칙론만 반복할 뿐이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실천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물론 어려운 시대 우리의 협회에서도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 건축업무관련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건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다. 그러나 노력을 아무리해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단결하여 머리띠를 두르고 전국건축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쳐대도 개선될 수 없는 이 시대 건축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협회에서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유치할 정도로 자세하게 생존을 위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회원들에게 주시시키고,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건축사란 호칭이나 건축사의 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캠페인이 중요하다.

건축은 창작이고, 예술이고, 삶의 터전이고, 문화의 바탕이다. 건축사는 그 주역으로 누가 무어래도 건축을 작곡하고 지휘하는 전문가이고 엘리트이다. 그런데도 왜 건축은 잡탕이 되어가고 건축사는 자꾸만 초라해 지는가. 작가정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건축의 본질적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듣기 싫은 부분이지만, 건축의 시작이 근본적으로 수주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어쩔 수 없이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새삼스럽게 거론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또 꺼내놓고 하겠

지만 아픈 부위는 자꾸만 되새겨 보아야한다.

작가정신이 좀 있다는 사람은 오불관언하며 냉수를 마시고 있고, 상술이 뛰어난 사람은 거상으로 크고 있으며, 보통사람들은 공무원을 대항하는 조사검사라도 하여 생존하려니 전문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방패로 전략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설계경기라는 이름하에 고귀한 전문능력과 피나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명목으로 온갖 아이디어를 사전에 받아보려고 하고 경쟁을 통해 최소의 대가를 주며 적당히 건축을 끝내고자 한다. 권력과 자본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점점 더 그 구조적인 힘은 제도적으로 구색을 갖추어가고 있고, 건축사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폐해는 더하면 더해가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한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현상설계에 목숨을 걸며 밤을 새고 피를 말리고 있는가. 이안 저안 만들어 집행관의 자본의 비위를 맞추면서 언제까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과정이라고 대범하게 웃을 수 있겠는가. 건축을 만들 기회를 얻는 과정은 정말 말로 옮기기가 싫을 정도이다. 기회를 얻고 난 다음의 설계나 감리과정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건축사.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대가. 그러면서도 일이 잘못 되면 건축을 망치는 주역으로 걸핏하면 뉴스에 오른다.

아픈 곳을 찢어 안됐지만 나는 유명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일이 많이 들어온다며 헛기침을 하거나 현상 당선율이 높아 비굴하지 않아도 잘 나간다는 사무실이 몇이나 될까.

이 시대의 구조적 불합리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지적재산도 보호 받아야할 귀중한 자원이다. 누구에게도 헛되게 착취당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어떤 명목으로도 계획설계를 대가없이 해주지 않기 운동만이라도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벌이자. 건축사의 노래를 제정하고 건축사대회에 모여 아무리 목청을 높여 불러도 소용없다.

아무리 무한경쟁시대라 하더라도 일을 수주하기위해 무한착취당하는 것은 스스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노력을 정말 건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쪽에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나도록 해보자.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방법을 연구해서라고 하나씩이라도 시행될 수 있게 캠페인을 벌여 나가자.

* 합당한 계획설계비가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설계경기에 불참한다.

- 공개경쟁. 지명경쟁에 따른 기준 설정, 계획설계비 보수 기준 결정

* 계약전 계획설계서비스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한다.

- 설계도가 아닌 규모검토 및 타당성조사 단계 보수 기준 결정.

계획설계단계 보수 기준 시행.

* 설계자가 아니면 감리는 할 생각도 하지 말자.

- 설계자의 감리책임 규정강화 시행

나만이 살고자 하면 결국 모두가 죽는다. 같이 살아야 나도 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설계나 감리를 공정하게 거래하지는 얘기가.

설계시장개방으로 큰 일은 외국건축사에게 빼앗기고 작은 일은 이래저래 당하고 있기만 할 것인가.

이것만 지켜진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곧 현상에 쏟았던 쓸데없는 노력을 실질적인 일에 쏟을 것이요. 계획 설계 서비스로 도움 당했던 아이디어를 제값받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주가 무책임하게 시행했던 각종 설계경기가 줄 것이며, 있어도 충분한 참가비를 줄 것이고 자연스럽게 점차 실적과 평판 위주로 건축사를 고르게 될테니 건축사는 그 실적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새 일 쫓아다니는 헛고생 대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주는 가장 적합한 작가를 선정하여 제값 주고 정당한 건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건축사는 책임있게 건축을 완성하여 후손에게 넘겨주는 진정한 건축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8000명의 건축사,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담합하지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사로서 정정당당하게 전문가의 위상을 높이고 살자는 얘기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협회를 중심으로 실천의 지혜를 다시 짜 보자.

의사는 진찰비부터 시작하여 병이 낫건 안 낫건 보수를 받고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선불로 받아야 일에 착수 하고 소송에 이기면 성과금을 또 받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작정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타령만하며 지낼 것인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